

#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바꾼다 : 청년기업가의 창업 도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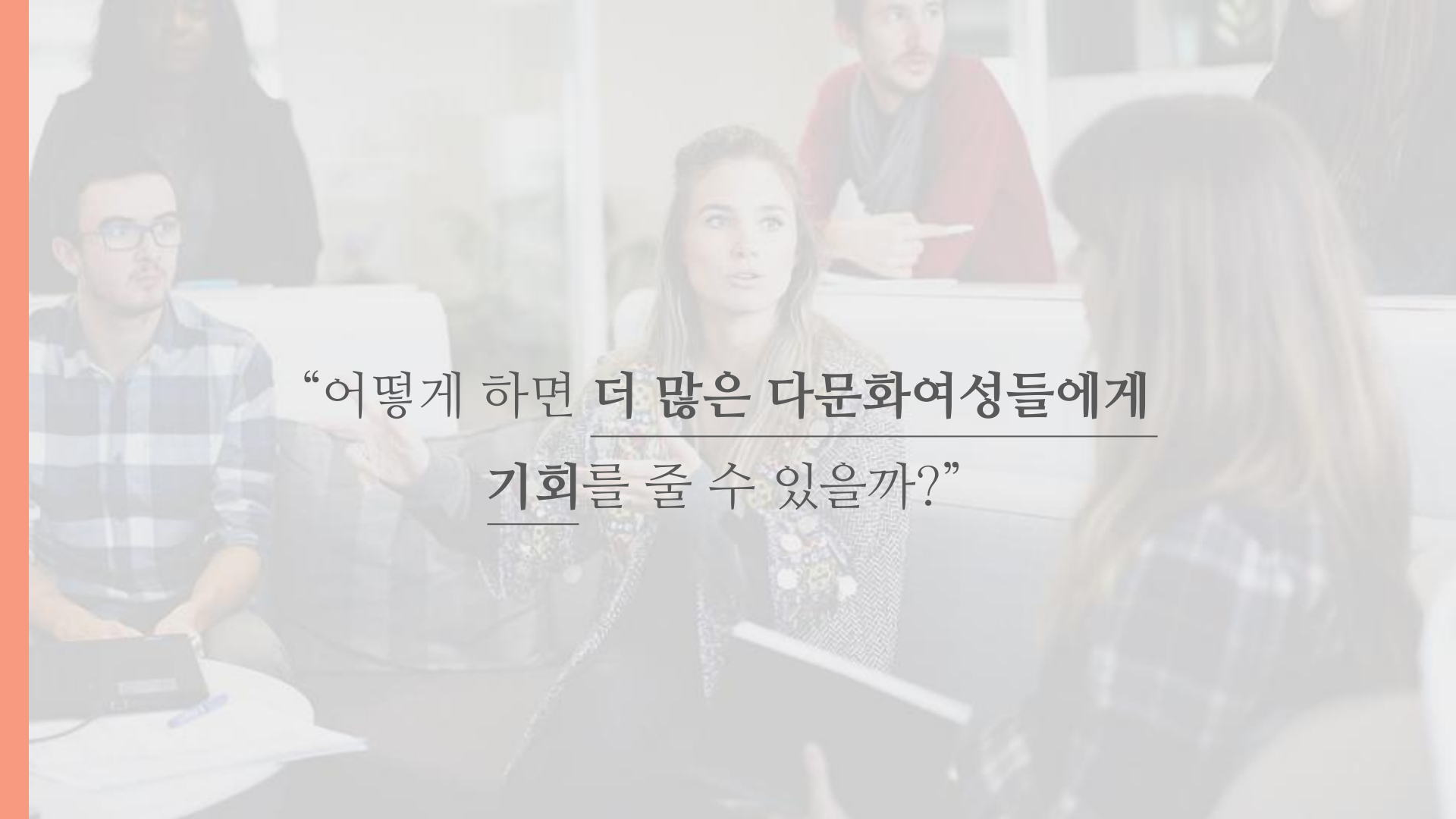
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정해진 숫자” 를 향해 달려가는 마케터



“성덕”이 되다.

A group of diverse people are gathered in a meeting or workshop. A woman in the center, wearing a patterned jacket, is speaking and gesturing with her hands. To her left, a man with glasses and a striped shirt is listening. In the background, a man in a red sweater is pointing towards the right. The scene is brightly lit, suggesting an indoor setting with large windows. The text is overlaid on the image, with the words '더 많은 다문화여성들에게' underlined.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문화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그날'이 두려워요... 비싼 생리대에 소비자 '불만'

입력 2015-09-07 13:35:27 | 수정 2017-11-22 오후 1:28:00



+ - ☰

생리대 가격 꾸준히 올라...1년만에 최고 42.4% ↑

부가세 면세로 인한 가격압박효과 체감 어려워



▲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 소비자가 생리대를 고르고 있다. ⓒ이세아 기자

최근 후 대형마트에 올린 이수연씨(35)는 생리대 코너에서 탄압을 머물렀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생리대 가격은 꾸준히 오른 것 같아요. 살 때마다 비싸게 느껴져요." 저렴한 계층을 찾으려 대대를 뒤적이는 이씨 옆에서 고통학생 김모양(18)도 생리대를 골랐다. 김양의 장바구니에는 대형 오버나이트 생리대 36개입이 1팩이 담겼다. 그는 "생리 양이 많아 대량 생리대만 4만원어치를 산다"며 "노력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 여성신문 / 2015.09.07]

# 소비자원, 2월 생필품 판매가격 소폭 '상승'

동일한 제품, 판매점 가격 차이...생필품 판매가격 변동 모니터링 강화

2015년 03월 23 09:58:11

변상이 기자 innaon@nao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전월 대비 품목별 평균 판매가격 동향 ⓒ 한국소비자원

[출처 : 시사오늘기자 / 2015.03.23]

“근데 그거 아세요?”

어릴 때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간혹 휴지를 말아서 쓰기도 했어요.

아마 이걸,  
저만의 문제는 아닐걸요?”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월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격적 혜택 제공

One for One



판매된 수량만큼

저소득층 여성에게

매월 기부

#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그 날'의 행복찾기!

스토리 댓글 105 새소식 12 서포터 376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해 자신감을 잃은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하여 생리대 구매와 동시에 생리대가 후원되는 "Women for Women"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소녀들이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목표 금액 2,730,000원 | 펀딩기간 2016.04.25-2016.05.22

100% 이상 모이면 리워드가 제공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펀딩 마감일까지 목표 금액이 100% 모이지 않으면 리워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결제 또한 진행되지 않습니다.

## 펀딩성공

232 % 달성

6,360,800 원 펀딩

376 명의 서포터

#이지엔모어 프로젝트는 소중한 서포터들의 펀딩과 응원으로 2016.05.22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64

공유하기

리워드 카카오톡 친구추거하고 혜택 받으세요!

1000p

● 펀딩하기는 쇼핑하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메이커 정보



(주)이지엔모어

www.easeandmore.com

모어박스 구성품

i'ore

47% 27,300원

(구성품 판매가 총 합계 52,200원)



PESTLO



POO-POURRI



nuts



Marymond



eve

01. 생리대 중형 2팩 (16개입\*2 / 릴리안 초흡수 / 정가:11,200원 (대형마트 기준))
02. 페슬로 씨드 마스크팩 1개 (정가:7,000원)
03. 푸푸리 토일렛퍼fum (29ml) 1개 (정가:10,000원 / 향 려덤배송)
04. 너즈패브릭퍼fum 피치베이비 (420ml) 1개 (정가:19,000원)
05. 마리몬드 헤어타이(5중) 1개 (정가:5,000원)

+ [선착순 1,000명] 와디즈 런칭 기념 혜택

전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청결제, 씬머스이브 5ml\*3EA

##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터내는 소녀들의 눈물

입력 : 2016-05-26 00:03 / 수정 : 2016-06-08 14:31

좋아요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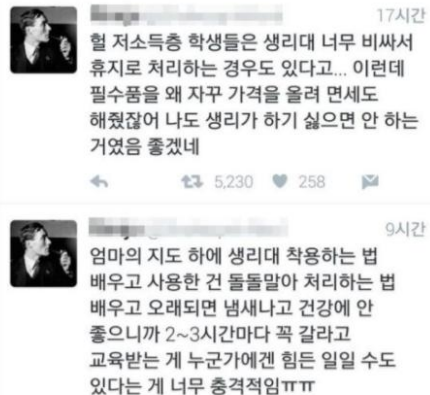
여성에게 매달 찾아오는 '마법의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작은 생리대 때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월경은 매월 여성들이 겪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생리대는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매달 써야하는 필수품입니다. 최근에는 일회용 생리대부터 빨아 쓰는 면생리대, 한방제품의 생리대까지 소비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생리대 제품들이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된 소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은 약 10만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거나 한 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소녀들은 비싼 '생리대' 구입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정체감을 가져야 할 나이에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 총 5,000회 이상 리트윗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0월,

## 보건복지부 생리대 지원 사업 발표

**전주 저소득층 청소년 200명, 태백로 생리대 지원** 광주일보 | 2일 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방식을 놓고 일었던 논란이 결국 전주시가 제시한 태백 수형 방법으로 결정됐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 이재명 시장,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해럴드경제 | 2일 전 네이버뉴스
- 성남시,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3천300명 생리대 지원 경가일보 | 1일 전
- 성남시 생리대 지원 다각화 기호일보 | 1일 전
- 성남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다각' - 민영이소리 | 2일 전

관련뉴스 23건 전체보기 >

---

**대전 대덕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아시아뉴스통신 | 3일 전

청소년 생리대 지원 대덕구청사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현 기자) 대전 대덕구는 관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내달 말까지 생리대를...

- 대덕구 보건소, 저소득층 청소년에 생리대 - 디프뉴스24 | 3일 전
- 이주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뉴스메이커 | 3일 전
- 오산시보건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 경가일보 | 2일 전

관련뉴스 4건 전체보기 >

---

**"유급 할인시 가지기세요" 생리대 무상지원 주는 약국** 위키트리 | 3일 전

서울 강남구 선릉동에 있는 한 약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무료로 생리대를 나눠주고 있다. 지난 26일 찾아간 이 약국 한편에는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 (유급 할인시 가지기세요)"라는 글과 함께 총...

---

**오산시보건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아시아투데이 | 5일 전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 거주자... 생리대 지원량은 1만당 3개월분(1차)이며 12월 30일까지 가래온 보건소 및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 오산시보건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 국제뉴스 | 5일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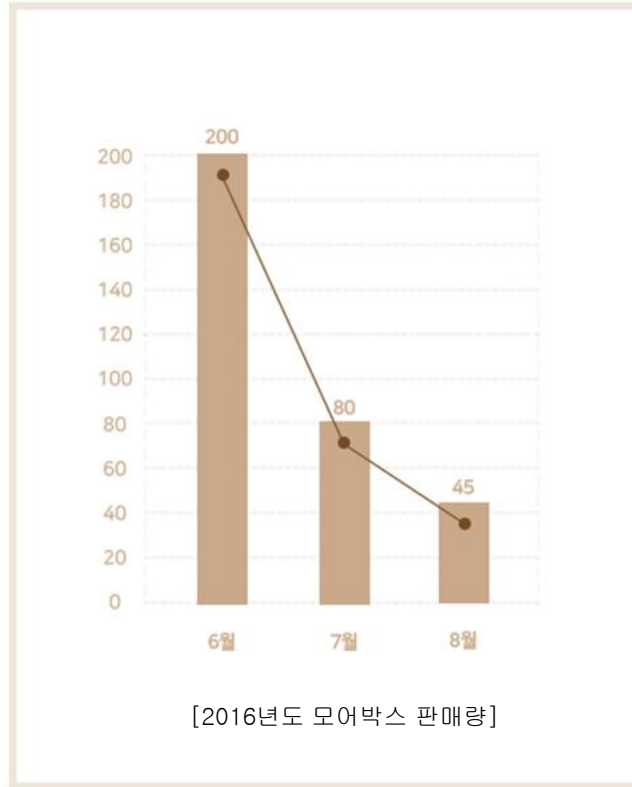
**구리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실시** 뉴스타운 | 5일 전

구리시(시장·백경원)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11~18세 여성 청소년 중 의료·상계급이 대상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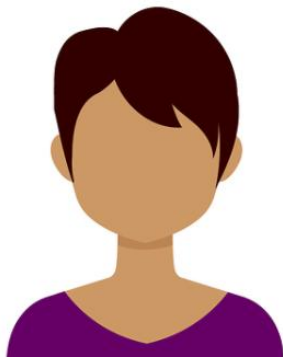
- 구리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뉴시스 | 5일 전 네이버뉴스
- 이주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불교공뉴스 | 5일 전
- 구리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 국제뉴스 | 5일 전
- <구리소속>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 연합뉴스 | 5일 전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7건 전체보기 >

## 점점 줄어드는 모어박스 판매량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월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월경용품 지원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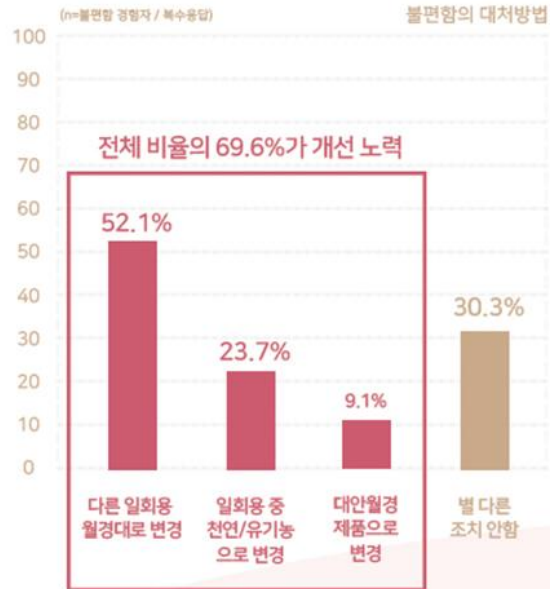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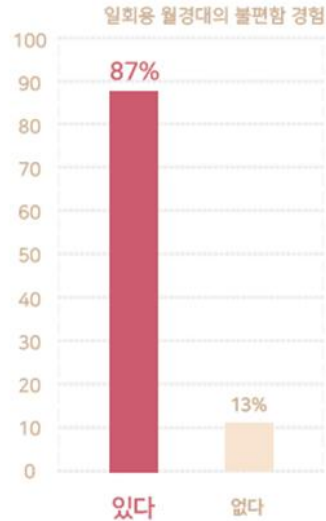
“도와줄게”



“솔루션 제공”



# 일회용생리대로 불편함을 경험해도 일회용생리대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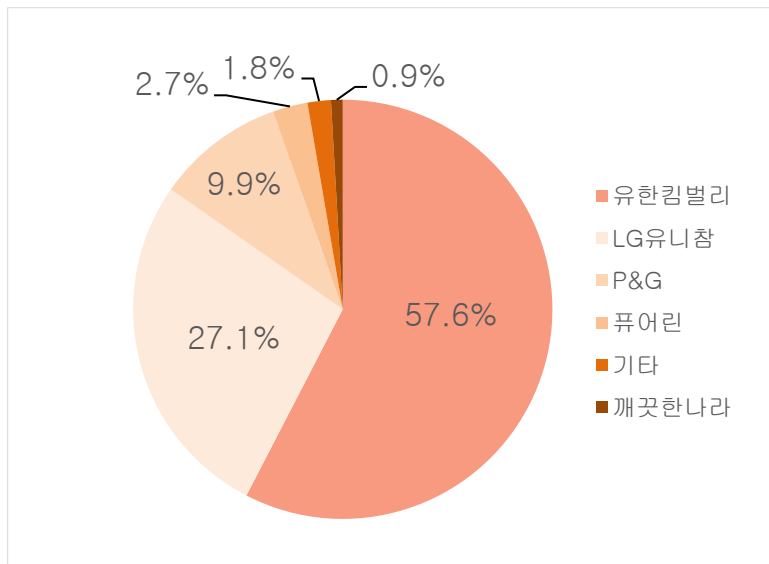


애플의 '아이폰' [사진=애플컴퓨터]



[2007년의 휴대폰]

## 독과점시장구조로 신규 시장의 한계



[표1] 온/오프라인 합산 판매액 기준 생리대 시장점유율 추이

업체명	대표브랜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반기
A 사	OOOO	47.6%	47.3%	48.5%	46.3%	45.1%	49.3%	47.2%
B 사	△△△△	22.0%	21.6%	21.2%	21.5%	23.1%	18.9%	18.7%
C 사	□□□□	15.8%	13.6%	11.3%	11.8%	9.8%	8.8%	8.5%
D 사	◇◇◇◇	0.0%	2.0%	6.0%	6.5%	9.0%	11.2%	11.1%
상위3사 합계		85.4%	82.5%	81.0%	79.6%	78.0%	79.4%	77.0%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참고 : 유해성생리대 논란 이후의 순위는? / 2017.12 / 중앙일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



선택권 다양화  
가격 안정화



근본적  
문제 해결



## 의약외품

---

월경컵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있지 않음

## 임상실험

---

인체에 장시간 사용해도  
무해하다라는 임상실험  
자료 제출

패션/뷰티 #국내첫월경컵 프로젝트

# 국내 최초, 월경컵(생리컵) 식약처 허가를 위한 #블랭크컵 프로젝트!

스토리

댓글 962

새소식 25

서포터 2562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월경컵(생리컵)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월경컵(생리컵) 허가#를 위해 함께 만들어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 펀딩성공

118 % 달성

59,208,701 원 펀딩

2,562 명의 서포터

#국내첫월경컵 프로젝트는 소중한 서포터들의 펀딩과 응원으로 2017.05.14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772

공유하기

리워드 카카오톡 친구추기하고  
혜택 받으세요!

1000p



## An Innovative, Reusable Menstrual Cup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Women's Lives during Menstruation

Alfred Shihata<sup>1\*</sup> and Steven Brody<sup>2</sup>

<sup>1</sup>Scripps Institution of Medicine and Science, San Diego, CA, USA.  
<sup>2</sup>UCSD School of Medicine, La Jolla, CA, USA.

### Authors' contributions

This work was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between all authors. All authors read and approved the final manuscript.

Original Research Article

Received 20<sup>th</sup> February 2014  
Accepted 7<sup>th</sup> April 2014  
Published 15<sup>th</sup> April 2014

### ABSTRACT

**Objective:** A) To evaluate the acceptability of a unique, Cost-effective, reusable, and environmentally safe device for menstrual blood collection among culturally diverse women. B)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women during menstruation.

**Methods:** The first author developed a unique, reusable menstrual collection device as an alternative to sanitary pads and tampons. After successful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FDA),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and Health Canada, granted their approval for the device.

The first author and five co-investigators recruited 146 women of diverse cultural and national backgrounds to evaluate the FemmyCycle. Women were instructed to use the FemmyCycle for three cycles, report any side effects and compare their experiences using the FemmyCycle with other sanitary products.

**Results:** Among all participants who used this new device for three cycles, 84% preferred the FemmyCycle over prior methods used for menstrual hygiene. These women rated the device superior to previously-used methods and safer for the environment than pads and tampons.

**Conclusions:** The majority of women preferred the FemmyCycle over their previous feminine sanitary protection methods. The device ca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enhance the quality of women's lives during menstruation, particularly working and



\*Corresponding author: Email: [alfred@femmycyclei.com](mailto:alfred@femmycyclei.com).



## 식약처, 국내 첫 생리컵 시판 허가...美 등 10여개국서 판매

등록 : 2017-12-07 16:23



식약처, 국내 첫 생리컵 시판 허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생리대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여성용품인 생리컵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음으로 정식 수입을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에서 제조한 생리컵 '페미사이클'(Femmycycle)의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품으로 생리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국내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페미사이클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10여개국에서 판매 중이며, 국내 수입사는 여성용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이지앤모더다.



페미사이클 드디어 국내 런칭!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워요.

2018. 02. 09

월경컵  
시장 개척



또 하나의  
선택권



매월 560명  
월경용품  
지원

“우리가 일반기업이었다면 월경컵 국내 도입을 할 수 있었을까?”



WECONNECT



여성들의 월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월경용품 지원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월경이 되는 그 날까지.

이지앤모어가 건강한 월경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건강한 월경라이프를  
꿈꿉니다.

EASE & MORE